

관계화

이필영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관계절의 구조

1.1. 관형절은 핵심 명사구¹⁾와 공지표(co-index) 관계를 갖는 명사구가 관형절의 한 성분으로 상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관계절²⁾과 명사구 보문으로 구분한다. 가령, (1가)처럼 피수식명사(구) ‘책’과 공지표를 갖는 명사구가 관형절 안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은 관계절, (1나)처럼 피수식명사 ‘사실’과 공지표를 갖는 명사구가 관형절 안에 상정될 수 없는 것은 명사구 보문이다.³⁾

(1) 가. [내가 [e]i 읽은] 책은 참 재미있더라.

- 1) 핵심 명사는 ‘표제명사’ 또는 ‘머리명사’로 불리기도 한다.
- 2) ‘관계절’은 ‘관계관형(사)절’로 불리기도 한다.
- 3) 명사구 보문은 대개 핵심 명사구의 내용절이 되는데, 다음의 관형절들은 내용절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명사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명사적 관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가. 그 사람이 집에 가는 대신 네가 일을 더 해라.

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중예) 그런 문제가 나왔다.

다. 그가 돌아간 뒤(다음)에 일이 터졌다.

나. [네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

그런데 관계절 안의 공지표 명사구는 (2)에서처럼 핵심 명사구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3)에서처럼 공범주(empty category)나 ‘자기’, ‘그’, ‘그것’과 같은 대명사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공범주로 나타나지만, 공지표 명사구가 속격어나 내포절 성분일 경우에는 대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가. *김 선생님의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간 김 선생님은 늘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나. ??내가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철수가 가져간 그 책은 내일 반납해야 한다.

(3) 가. {[e]_i, 자기_i, 그_i}의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간 김 선생님은 늘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나. 내가 {[e]_i, 그것_i}을 읽고 있을 때 철수가 [e]_i 가져간 그 책은 내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절 내의 공지표 명사구 생성에 관하여 80년대 이전에는 기저에 핵심 명사구와 동일한 명사구를 상정하고, 거기에 의무적인 대명사화 규칙과 수의적인 대명사 삭제 규칙이 차례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가령, (3가)의 기저 구조를 (4가)와 같이 상정하고, 여기에 관계절의 공지표 명사구가 대명사화되면 (4나)가 도출되고, 다시 그것에 대명사 삭제 규칙이 적용되면 (4다)가 된다.

(4) 가. 김 선생님의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간 김 선생님은 늘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나. 그_i의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간 김 선생님은 늘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다. [e]i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간 김 선생님은 늘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삭제와 같은 변형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80년대 이후에는 관계절 내의 명사구를 핵심 명사구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기저에 핵심 명사구와 공지표되는 영대명사(pro) 또는 영복귀대명사(zero resumptive pronoun)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저에 영형태의 대명사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것이 관계절에 다시 내포된 절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명사로 실현되고, 관계절의 주절에 속해 있을 때는 공범주로 남는다고 한다.

1.2.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 명사구와 공지표 관계에 있는 관계절 명사구는 공범주나 대명사로만 나타나지만, 관계절을 주절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핵심 명사구로 대체된다. 그런데 (5)에서와 같이 핵심 명사가 의존성 명사 ‘바’일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5) 가. 네가 [e]i 생각하는 바i(를 말해 봐라)

나. *네가 (어떤) 바를 생각한다.

그렇다면 (5가)의 관형절을 관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5가)의 관형절에는 서술어 ‘생각하는’의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맥상 생략된 것이 아니라 구조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즉 이 관계절의 목적어는 핵심 명사구 ‘바’와 결속되어(bound) 있어서 공범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5)와 같이 비록 관계절의 공범주가 핵심 명사구와 대체될 가능성이 없어도 구조상 결속 관계에 있다면 그들은 공지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느 관계절 구성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공범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6가)와 같은 연어적 구성이 바로 그것

이다. (6가)에는 관형어 ‘새까만’이 서술하는 주어를 상징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6나)와 같이 피수식어 ‘선배’와 관형어 ‘새까만’이 주술 관계를 갖기 어렵다. 이 점은 앞의 (5)에서와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5)는 구조상 관형절 안에 공범주를 상징할 수가 있는 데 비하여 (6)은 그럴 수가 없다.⁴⁾ 왜냐하면 (6다)에서 보듯이 활용의 제약을 받는 ‘새까만’은 관형절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⁵⁾

- (6) 가. *[e]i 새까만 선배
- 나. *선배가 새까맣다.
- 다. {*새까마신, *새까맣} 선배

한편, 공지표 관계에 있는 관계절 내의 공범주와 핵심 명사구가 공지시(coreference)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지표되는 핵심 명사구와 관계절 내의 공범주가 공지시성을 갖는다. 그런데 다음의 (7)에서는 이들이 공지시성을 갖지 않는다.

- (7) 가. 오늘 어머니가 [e]i 담그신 갓김치는 산간 지대에서 배추김치를 대신하는 반찬이다.
- 나. 김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e]i 마음의 양식인 책_i을 읽고 계셨다.

4) 연어는 의미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 성분이 우연히 결합하여 관습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일반적인 관형 구성과 통사적 구조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새까만’이 서술적 기능을 전혀 갖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예) [?](입사 시절) 새까맣던 그 선배

이 예는 ‘새까만’이 본래 관형절 서술어였던 데서 그 기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잔존한 일부의 서술적 기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새까만’이 본래 서술적 기능을 갖지 않고 쓰이던 것이 일반적인 관형절 구성에 유추되어 서술적 기능을 일부 지니게 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7가)에서 관계절의 공범주는 특정한 갖김치를 지시하는 데 비해서 상위절 주어인 핵심 명사구 ‘갖김치’는 부류로서의 갖김치를 지시한다. 그러니까 전자의 지시는 특정적(specific), 후자의 지시는 총칭적(generic)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7나)에서는 관계절 내에 있는 공범주의 지시가 총칭적인 데 비하여 상위절의 핵심 명사구(‘책’)의 지시는 특정적이다. 그러니까 (7)의 핵심 명사구와 관계절 공범주는 지시적 동일성이 아닌 어휘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공지표 관계를 이룬 셈이다.

2. 관계화의 성립 조건

2.1. 관계화의 성립은 핵심 명사구와 공지표되는 관계절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관계화가 가능하다. 여기서의 특별한 경우란 (8)에서와 같이 주격 명사구가 거듭 출현한 문장에서 두 번째 주격 명사구가 관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

- (8) 가. ^{??}코끼리가 [e]i 긴 코i
 나. ^{??}철수가 [e]i 많은 돈i

그런데 이와 같이 동일한 격 성분이 거듭 출현하는 문장에서 두 번째 격 성분이 관계화되지 못하는 것은 주격만이 아니라 목적격, 부사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는 주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 (9) 가. *철수가 영화를 [e]i 잡은 손목i
 나. *철수가 영화에게 [e]i 목걸이를 걸어 준 목i

목적어는 (10)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화가 잘 되는 편이다. (10)

가)에서 핵심 명사구 ‘아내’와 공지표된 공범주는 ‘영희’와 의미상 주술 관계를 갖고, (10나)에서는 공범주가 행위(‘가다’)의 목적을 나타낸다.

- (10) 가. *철수가 영희로 [e]i 삼은 아내
- 나. *철수가 [e]i 간 등산

이에 비해서 주격 보어는 관계화가 비교적 잘 안 되는 편이다. (11가)와 (11나)에서는 관계절 내의 공지표 명사구가 ‘철수’에 대하여 의미상 술어적 기능을 하고 (11다)에서는 심리적 상태의 대상을 나타낸다⁶⁾.

- (11) 가. *철수가 [e]i 아닌 범인
- 나. ??철수가 [e]i 된 반장
- 다. ?(?)네가 [e]i {싫은, 좋은} 음식

부사어 중에서 ‘NP에(게)’, ‘NP로’, ‘NP에서’는 대체로 관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의미역에 따라 제약을 받기도 한다. 가령, 이들이 [원인], [행동주], [출발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화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12) 가. *[e]i-(에) 나무들이 쓰러진 바람
- 나. *[e]i-(으로) 교통이 마비된 폭설
- (13) *[e]i-(에게) 도둑이 잡힌 경찰
- (14) *철수가 [e]i-(에서) 이리로 이동한 장소

(12)는 [원인]을 나타내는 ‘바람(에), 폭설(로)’가,⁷⁾ (13)은 [행동주] 역할을

6) 학자에 따라서는 (11다)의 관계절 내의 공범주를 주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7) 그런데 본래 [원인]의 의미를 지닌 ‘까닭, 이유’는 관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 가. [e]i-(에) 나무들이 쓰러진 까닭

나. [e]i-(으로) 교통이 마비된 이유

하는 ‘경찰(에게)’가 관계화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⁸⁾ 그리고 [출발점]의 ‘NP에서’는 대개 관계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14)에서처럼 [출발점]과 [방향]이 짝이 되어 쓰이는 ‘NP에서 NP로’의 구성에서는 관계화가 어렵다.⁹⁾

‘NP에(게)’, ‘NP로’, ‘NP에서’에 비해 ‘NP와’는 관계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15가)처럼 서술어가 동작동사이면 ‘NP와’는 아주 자연스럽게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화가 성립한다.¹⁰⁾ 그런데 (15나)처럼 서술어가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와 같이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동사일 경우에는 관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¹¹⁾

- (15) 가. ^(?)철수가 [e]i 싸운 아이
 나. ^{??}(*)철수가 [e]i (나이가) {같은, 다른, 비슷한} 아이

그리고 역시 [비교]를 나타내는 ‘NP보다’와 ‘NP처럼’은 관계화되지 않는다.

8)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역의 ‘바람, 폭설’이나 [행동주]역의 ‘경찰’이 주어로 등장하면 관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 가. [e]i 나무들을 쓰러뜨린 바람
 나. [e]i 교통을 마비시킨 폭설
 다. [e]i 도둑을 잡은 경찰

9) 이럴 때 ‘NP로’는 어느 정도 관계화가 아주 자연스럽게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예) 철수가 거기에서(부터) [e]i 이동한 (다음) 장소

10) 그러나 (예-가)에서처럼 ‘NP와’가 [동반]을 나타낸 경우에는 ‘함께’를 생략하면 관계화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때의 ‘NP와’가 본래 부사인 ‘함께’가 필요로 하는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 가. *철수가 [e]i 공부한 아이
 나. 철수가 [e]i 함께 공부한 아이

11) ‘NP와’를 취하는 형용사 가운데서 ‘친하다’, ‘가깝다’는 ‘다르다’, ‘같다’, ‘비슷하다’ 등에 비해서 비교적 관계화를 잘 허용하는 편이다.

(예) ^(?)자기 반에서 철수가 가장 [e]i {친한, 가까운} 아이

- (16) 가. *철수가 [e]i-(보다) 더 빠른 영수i
- 나. *철수가 [e]i-(처럼) 잘 달리는 영수i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관계화가 가능한 정도를 문장성분과 격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관계화 가능성 정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NP에(게), NP로, NP에서’)> 부사어(‘NP와’)> 주격 보어> 부사어(‘NP보다, NP처럼’)

2.2. 한편, 속격어의 관계화는 속격 명사구와 관계절 내용 사이의 의미적 관련이 긴밀할수록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속격어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구 사이의 의미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가령, 다음 (18가)의 비양도성 명사 ‘팔’을 수식하는 ‘학생’은 (18나)의 양도성 명사 ‘책’을 수식하는 ‘학생’에 비해 관계절 내용과의 의미 관련성이 강하고, 따라서 관계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

- (18) 가. 철수가 [e]i 팔을 붙들고 있는 학생i
- 나. ??철수가 [e]i 책을 들고 있는 학생i

그러나 속격어와 관계절과의 의미 관련성 문제는 결국 관계절 내용이 속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령, 다음 (19)는 (18나)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양도성 명사구 ‘책’을 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화가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18나)의 관계절 내용은 ‘학생’의 상태나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데 비해서 (19)의 관계절은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19)는 선생님이 어떤 학생의 책상에서 책을 치워버려서 그 학생이 당황했다거나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되었거나 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19) 선생님이 책상에서 [e]i 책을 치워 버린 학생i

2.3. 절 안의 어떤 명사구가 자신이 나타날 위치에 공범주로 실현되면서 그것이 절 밖의 명사구와 공지표되는 현상은 관계화만이 아니라 주제화에서도 볼 수 있다. 사실상 앞에서 살펴본 관계화 성립 가능성이 주제화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 또, 관계절이 핵심 명사구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제어 문장도 주제어에 관한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볼 때 양자는 통사 의미론적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화는 종종 주제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간주되어 오기도 했다. 즉 핵심 명사구와 공지표되는 것은 언제나 주제어라는 것이다. 다음의 (20)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20) 가. 영희가 집을 나간 철수는 요즘 매일 술만 마신다.

나. 철수는 영희가 집을 나갔다. 철수는 요즘 매일 술만 마신다.

다. [[e]i 영희가 집을 나간] 철수i

얼핏 보기에 (20가)의 핵심 명사구 ‘철수’는 관계절 안의 그 어느 성분과도 공지표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의 아내이거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20나)에서처럼 ‘철수’는 첫째 문장의 주제어로 등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20가)가 관계화될 수 있는 것은 (20다)에서처럼 핵심 명사구 ‘철수’가 관계절 내의 주제어 명사구와 공지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제어가 관계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21) 가. 꽃은 장미가 제일이다.

나. *[e]i 장미가 제일인 꽃i

(22) 가.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갔다.

나. *[e]i 캘리포니아에 간 미국i

그런가 하면 주제어로 나서기 어려운 명사구가 관계화되는 경우도 있다.

(23) 가. *그런 이유는 철수가 결석했다.

나. 철수가 결석한 이유

(24) 가. ??그 여자는 철수가 결혼했다.

나. 철수가 결혼한 여자

따라서 주제어가 관계화될 수는 있지만 주제어만이 관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제화와 관계화는 통사적 유사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인과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3.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

관계절은 핵심 명사구를 한정해 주는 제한적(restrictive) 관계절과 핵심 명사구에 관한 보충(부연) 설명을 하는 비제한적(non-restrictive) 관계절로 나뉜다. 대개는 (25가)와 (25나)에서처럼 핵심 명사구가 비한정적(indefinite)이면 제한적 관계절, 핵심 명사구가 한정적(definite)이면¹²⁾ 제한적 관계절이 된다.

(25) 가. 그는 어제 산 옷을 입고 나갔다.

나. 그는 어제 산 그 옷을 입고 나갔다.

그러나 [+한정적] 핵심 명사구가 이끄는 관계절이 제한적 성격을 지닐 경우도 있다. 가령, 고유명사의 경우, (26가)에서처럼 동일한 고유명을 가진 인물이 둘 이상이거나 (26나)에서처럼 어떤 인물이 지닌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하여 나타낼 경우에는 제한적 관계절이 된다.¹³⁾

12) 지시사와 결합된 명사, 고유명사, 유일지시적 명사, 총칭적(generic) 명사 등은 [+한정적] 자질을 지닌다.

(26) 가. 우리 반에는 키가 큰 순희와 키가 작은 순희가 있다.

나. 그는 공부를 잘하는 철수는 알아도 운동을 잘하는 철수는 모른다.

그런가 하면 [-한정적]인 핵심 명사구가 비제한적 관계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다음 (27)의 [-한정적] 명사구에 선행하는 관계절은 문맥에 따라 제한적 또는 비제한적이 된다.

(27) 가. 나에게서는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는 후원자가 세 명 있다.

나. 그는 집앞에서 산 꽃을 들고 서 있었다.

(27가)는 후원자가 세 명 이외에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명의 후원자만이 ‘나를 언제나 지지해 준다’는 것을 나타낼 경우에는 제한적 관계절 구문이 되고, ‘나’에게 있는 후원자가 모두 세 명뿐임을 나타낼 경우에는 비제한적 관계절 구문이 된다. (27나)는 어디에서 산 꽃인가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제한적 관계절이 되지만, 들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비제한적 관계절이 된다.

논리적 순서로 볼 때, 제한적 관계절은 주절에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비해 부연적 성격을 지닌 비제한적 관계절은 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령, (27나) 관계절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비제한적 해석은 각각 (28가)와 (28나)로 나타낼 수 있다.

(28) 가. 그는 집앞에서 꽃을 샀다. 그는 그 꽃을 들고 서 있었다.

나. 그는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그 꽃을 집앞에서 샀다.

13) 또 다음 예에서처럼 지시사(‘저’)가 관계절 앞에 놓일 경우에는 핵심 명사구가 비한정적이 되고, 따라서 관계절이 제한적 성격을 띠 수가 있다.

(예) 저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옷을 주세요.

이러한 차이는 휴지(pause)와 강세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즉, 제한적 관계절과 달리 비제한적 관계절은 핵심 명사구와의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있으며, 제한적 관계절은 강세가 핵심 명사구에 놓이지 않고 관계절에만 놓일 수 있는 데 비해 비제한적 관계절은 강세가 핵심 명사구에 놓일 수 있다.¹⁴⁾ 그리고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통사론적 차이를 보여 준다.

첫째, 제한적 관계절에서는 의문사의 의문 자질이 절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비하여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가령, (29가)에서는 제한적 관계절의 ‘어디’가 지닌 [+未知]의 자질이 상위절 의문형 어미와 자질 일치할 수 있는데 비하여 비제한적 관계절 구문인 (29나)에서는 ‘어디’가 지닌 [+未知]의 자질이 관계절 밖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질 일치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¹⁵⁾ 이것은 [-한정적] 핵심 명사구가 이끄는 (29다)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29) 가.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산 꽃을 들고 있었니?
 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산 # 그 꽃을 들고 있었니?
 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산 # 꽃을 들고 있었니?
 (#는 휴지를 나타낸 것임)

둘째, 제한적 관계절은 상위절 부정사의 영역 안에 들 수 있는데 비하여 비제한적 관계절은 그렇지 않다. 가령, 제한적 관계절 구문인 (30가)는 ‘집 앞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꽃을 가져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비하여 비제한적 관계절 구문인 (30나)는 ‘그 꽃이 아닌 다른 꽃을 가져

14)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비제한적 관계절 앞에는 휴지가 올 수 있지만 제한적 관계절 앞에는 휴지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의 쉽표나 줄표는 이러한 음성언어적 특성을 표기한 것이라고 보인다.

15) (예)에서처럼 비제한적 관계절 안의 ‘어디(어딘가)’가 [-未知]의 자질을 지닐 경우에는 (29나)에서와 같은 자질 일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은 집앞 어디에서(어디에선가) 산 그 꽃[-未知]을 들고 있었니?

왔다'거나 '그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정적] 핵심 명사구가 이끄는 (30다)의 비제한적 관계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30) 가. 그 사람은 집앞에서 산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
 나. 그 사람은 집앞에서 산 # 그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 그 사람은 집앞에서 산 # 꽃을 가져오지 않았다.

셋째, 제한적 관계절에는 핵심 명사구와 공지표되는 명사구가 대명사 '그'로 나타날 수 없는 데 비하여 비제한적 관계절에는 그것이 가능하다.¹⁶⁾

- (31) 가. 사람들은 { [그]*i/j, [eli] }-(의) 권총을 빼앗긴 경찰을 비난하였다.
 나. 사람들은 { [그]i/j, [eli] }-(의) 권총을 빼앗긴 # 그 경찰을 비난하였다.
 다. 사람들은 { [그]i/j, [eli] }-(의) 권총을 빼앗긴 # 경찰을 비난하였다.

16) 대명사와 선행사 간의 공지표 관계 여부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는 데다가 [-한정적] 핵심 명사구의 관계절이 제한적인가 비제한적인가를 가리는 것도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30가)와 (30다)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예-가)는 [-한정적] 핵심 명사구가 이끄는 관계절이 제한적으로만 해석되는 경우이고, (예-나)는 [+한정적] 핵심 명사구가 비제한적 관계절을 취하는 경우이다.

- (예) 가. { [그]*i/j, [eli] }-(의) 형보다 키가 큰 사람
 나. { [그]i/j, [eli] }-(의) 형보다 키가 큰 그 사람

참고 문헌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22”, 서울: 국어학회.
- 김선호(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명윤(1986), “국어의 관계화”, 서울: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 강영세(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
- 고영근(1982),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관악어
문연구 7”. 서울: 태학사.
- 김태한(1975), “The Grammar of Korean Nominalization and
Relativization”, Ph 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School.
- 박승윤(1984), ‘Why not a topic in a relative clause?’ “어학연구 20-2”, 서
울: 서울대어학연구소.
- 박승윤(1990), ‘Relative clauses and discourse’, “한국말 교육 2”,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 양동휘(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서울: 범한서
적.
- 양동휘(1986), ‘關係化’, “영문법개론(II)”, 서울: 新雅社.
- 오준규(1971), “Aspects of Korean Syntax”,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Hawaii.
- 우형식(1985),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 명사’, “원우론집 15-1” 서울: 연세대.
- 이선우(1984), ‘한국어 관계절의 회생대명사에 관하여’, “어학연구 20-1”, 서
울: 서울대어학연구소.
- 이필영(1981), ‘국어의 관계관형절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8” 서울: 서울대.
- 이필영(1990), ‘관계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서울대

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이홍배(1975), ‘국어의 관계절화에 대하여’, “어학연구 11-2”, 서울: 서울대어학연구소.

이홍식(1990), ‘현대국어 관형절 연구’, “국어연구 98” 서울: 서울대.

허원욱(1995), ‘현대국어의 매김마디 연구’, “한말연구 1”, 서울: 한말연구모임.

Keenan, E.L. & Comrie, B.(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Kuno, S.(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The MIT Press.

Kuno, S.(1976), “Subject, Theme and the Speaker’s Empathy···a Reexamination of Relativization Phenomena, in Subject and Topic”(Li, Charles N ed.).

Shin-Ja, Hwang(1990), ‘The Relative Clause in Narrative Discourse’, “어학연구 26-2”, 서울: 서울대어학연구소.